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

제 목 : 2013년 12월 12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

“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”

(붙임 참조)

문의처 :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차장 장정수

Tel : 759-4066 Fax : 759-4485 E-mail : cschang@bok.or.kr

공보실 : Tel (02) 759-4015, 4016

“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>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

한국은행
THE BANK OF KOREA

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

[정책결정]

-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(2.50%)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.

[세계경제]

- 세계경제를 보면, 미국에서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되었고 유로지역에서는 경기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이어갔으며 신흥시장국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유지되었다. 앞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,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한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가능성, 미국의 재정 관련 불확실성 지속 등이 성장의 하방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.

세계경제 성장률						주요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 국채금리 ¹⁾				
(전기비연율, %)						(기말 기준, %)				
	12.3/4	4/4	13.1/4	2/4	3/4		13.9월	10월	11월	12.11월
미 국	2.8	0.1	1.1	2.5	3.6	미국	2.61	2.55	2.74	2.85
유로지역	-0.5	-2.1	-0.8	1.2	0.3	독일	1.78	1.67	1.69	1.81
일 본	-3.2	0.6	4.5	3.6	1.1	영국	2.72	2.62	2.77	2.86
중 국 ¹⁾	7.4	7.9	7.7	7.5	7.8	브라질 ²⁾	11.58	11.67	12.63	12.57
						인도	8.76	8.63	8.74	8.83
						인도네시아	8.43	7.40	8.60	8.63

주: 1) 전년동기비
자료: Bloomberg, CEIC

주: 1) 10년물 2) 5년물
자료: Bloomberg

[실물경제]

- 국내경제를 보면, 내수와 수출이 모두 증가하면서 경기가 추세치를 따라 회복세를 지속하였다.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. 앞으로 GDP갭은 상당기간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겠으나 그 폭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.

실물경제지표

(전년동기대비, %)

	2011	2012	13.1/4	2/4	3/4	8월	9월	10월	11월
GDP 성장률	3.7	2.0	1.5	2.3	3.3	-	-	-	-
GDP 민간소비	2.4	1.7	1.5	1.8	2.1	-	-	-	-
소매판매	4.5	2.3	0.2	1.1	0.7	2.5	-1.2	1.6	..
(S.A, 전기비)	-	-	(-1.2)	(0.4)	(1.3)	(0.4)	(-1.9)	(1.3)	(..)
GDP 설비투자	3.6	-1.9	-11.9	-4.6	1.5	-	-	-	-
설비투자지수	4.0	-2.0	-15.4	-10.0	-4.7	4.2	-9.1	14.2	..
(S.A, 전기비)	-	-	(-4.5)	(-1.0)	(0.5)	(-0.2)	(-4.0)	(19.3)	(..)
GDP 건설투자	-4.7	-2.2	2.4	7.2	8.6	-	-	-	-
건설기성액	-6.4	-5.8	5.2	15.6	11.1	17.0	5.6	16.5	..
(S.A, 전기비)	-	-	(4.4)	(7.7)	(-1.5)	(0.3)	(-2.9)	(2.8)	(..)
수출(통관)	19.0	-1.3	0.4	0.7	2.8	7.5	-1.6	7.2	0.2
(일평균, 억달러)	(20.2)	(20.0)	(20.2)	(20.6)	(20.0)	(19.7)	(22.3)	(22.0)	(20.4)
제조업 생산	6.0	0.8	-1.8	-0.8	0.0	3.2	-4.0	3.0	..
(S.A, 전기비)	-	-	(-0.9)	(-1.5)	(0.4)	(1.6)	(-2.5)	(2.0)	(..)
서비스업 생산	3.2	1.6	0.8	1.7	0.7	1.5	-0.3	2.7	..
취업자수 증감 ¹⁾	415	437	257	324	421	432	463	476	588
(공공부문 ²⁾ 제외)	424	437	274	318	402	416	440	414	517

주: 1) 전년동기대비 증감, 천명(연간 및 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)

2)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

[물 가]

- 1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하락세 둔화, 일부 공업제품가격 상승 및 전기료 인상 등으로 전월의 0.7%에서 0.9%로 높아졌으며,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1.6%에서 1.8%로 상승하였다.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국제곡물가격 안정 등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을 나타내겠으나 현재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.

물가상승률

	(전년동월대비, %)				
	13.7월	8월	9월	10월	11월
소비자물가	1.4	1.3	0.8	0.7	0.9
(전월비)	0.2	0.3	0.2	-0.3	-0.1
▪ 농축수산물	0.4	2.1	-3.8	-5.4	-3.7
(농산물)	0.2	2.3	-7.4	-10.6	-8.8
▪ 공업제품	1.4	0.7	0.8	1.0	1.4
▪ 서비스	1.3	1.3	1.2	1.1	1.1
농산물 및 석유류제외	1.5	1.3	1.6	1.6	1.8
식료품 및 에너지제외	1.3	1.2	1.3	1.4	1.5

- 주택시장을 보면, 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지방에서는 오름세가 소폭 확대되었다. 전세가격은 수도권에서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지방에서는 전월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하였다.

주택가격상승률

	(전월비, %)				
	13.7월	8월	9월	10월	11월
주택 매매가격 ¹⁾	0.0 (-0.1)	0.0 (-0.1)	0.1 (0.0)	0.2 (0.3)	0.2 (0.2)
▪ 수도권 ²⁾	-0.2 (-0.3)	-0.2 (-0.3)	-0.1 (0.0)	0.1 (0.3)	0.0 (0.1)
(서울)	-0.2 (-0.4)	-0.2 (-0.4)	0.0 (0.0)	0.1 (0.3)	0.0 (0.1)
▪ 광역시 ³⁾	0.2 (0.2)	0.2 (0.0)	0.2 (0.1)	0.3 (0.3)	0.4 (0.3)
▪ 지방 ⁴⁾	0.2 (0.1)	0.1 (0.0)	0.1 (0.1)	0.3 (0.2)	0.3 (0.2)
주택 전세가격 ¹⁾	0.4 (0.3)	0.6 (0.4)	0.8 (0.5)	0.9 (0.7)	0.6 (0.5)
▪ 수도권 ²⁾	0.5 (0.4)	0.8 (0.7)	1.2 (0.8)	1.2 (1.0)	0.8 (0.7)
(서울)	0.5 (0.5)	0.8 (0.8)	1.1 (0.9)	1.1 (1.0)	0.7 (0.7)
▪ 광역시 ³⁾	0.2 (0.3)	0.3 (0.3)	0.3 (0.3)	0.4 (0.4)	0.5 (0.4)
▪ 지방 ⁴⁾	0.3 (0.2)	0.3 (0.2)	0.3 (0.2)	0.6 (0.4)	0.4 (0.3)

주: 1) ()내는 한국감정원 지수 기준

2) 서울, 인천, 경기 3)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, 울산

4) 한국감정원 지수는 수도권 제외(5대 광역시는 포함)

자료: 국민은행, 한국감정원

[금융시장]

- 금융시장에서는 주로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전망의 영향을 받아 주가는 상당폭 하락하였고 장기시장금리는 상승하였다.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의 영향으로 등락하면서 하락하였다.

금리, 주가 및 환율¹⁾

	13.7월	8월	9월	10월	11월	12.11일
CD(91일)금리(%)	2.66	2.66	2.66	2.65	2.65	2.65
국고채(3년)금리(%)	2.92	2.88	2.82	2.82	3.01	3.01
KOSPI	1,914.0	1,926.4	1,997.0	2,030.1	2,044.9	1,978.0
원/달러 환율	1,123.5	1,110.0	1,074.7	1,060.7	1,058.2	1,052.1

주: 1) 기말기준

[향후 정책 방향]

-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해외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 및 영향에 깊이 유의하고 기준금리 인하 및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정부 경제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면서,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.